
 산업통상자원부		<h1>보도자료</h1>		
<a href="http://www.motie.go.kr">http://www.motie.go.kr</a>				
2021년 2월 3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월 3일(수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				
배포일시	2021. 2. 2.(화)	담당부서	전자전기과	
담당과장	정석진 과장(044-203-4260)	담당자	박이용 사무관(044-203-4265)	

## 빠른 제조기반으로 전자제조강국 부활의 시동을 걸다

- 2021년부터 소량시험제조가 가능한 전자혁신제조플랫폼 운영 -  
- 혁신아이디어 기업의 초도생산 및 상품화 집중 지원 -

-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, 이하 ‘산업부’)는 혁신아이디어 제품의 빠른 제조지원을 위해 ‘전자혁신제조지원사업’을 추진한다.

### < 사 업 개 요 >

- 사 업 명 : 전자혁신제조지원사업
- 사업내용 : 빠른제조·부품지원·상품화지원을 위한 전자혁신제조플랫폼 구축
- 사업기간 및 사업비 : '21년~'23년(3년), 60억원(국비 전액)
- 주관기관 : 공모
- 접 수 처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(www.k-pass.kr) 온라인 등록

- 동 사업을 통해 국내에 소량 제조할 곳이 없어 해외로 나가고 있는 제조수요를 국내로 환원하고 혁신 아이디어의 빠른제조, 부품조달, 상품화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자혁신제조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.

- 전자산업은 도전적 시행착오를 거쳐 히트상품으로 성공시킨 혁신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, 국내에서는 혁신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품 소량생산이 어려운 상황이다.

- 이에 따라 전자제조기업은 기술유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, 부품조달·시제품제작·검사·양산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찾아

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.

- 반면, 중국 심천\*의 경우 밀집된 제조기반을 중심으로 샤오미, 화웨이 같은 혁신기업이 탄생하며 하드웨어의 실리콘밸리라 불리고 있다.

\* 면적 1.5Km<sup>2</sup>, 4만개 전자상가(화창베이)를 중심으로 부품상, 디자인하우스(설계, 소량생산), 제조서비스업체가 밀집 → 설계·부품구매·생산·유통을 한곳에서 해결

- 이에 산업부는 혁신아이디어가 있는 전자기업 누구나 활용 가능한 전자혁신제조플랫폼 구축을 통해 빠른 제조·부품 지원·상품화가 가능한 전자제조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.

## ① 전자제조 및 유통인프라가 밀집\*된 지역내에 빠른제조·부품지원 인프라 구축·운영을 통해

\* 빠른 소비 트렌드 반영과 부품의 공급, 물류, 유통이 원활한 지역

- 초도양산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전자기업이 실제 판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제품을 시험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

\* 시장에 본격 출시전 10~1000개의 소량생산·검사·평가 반복지원 체계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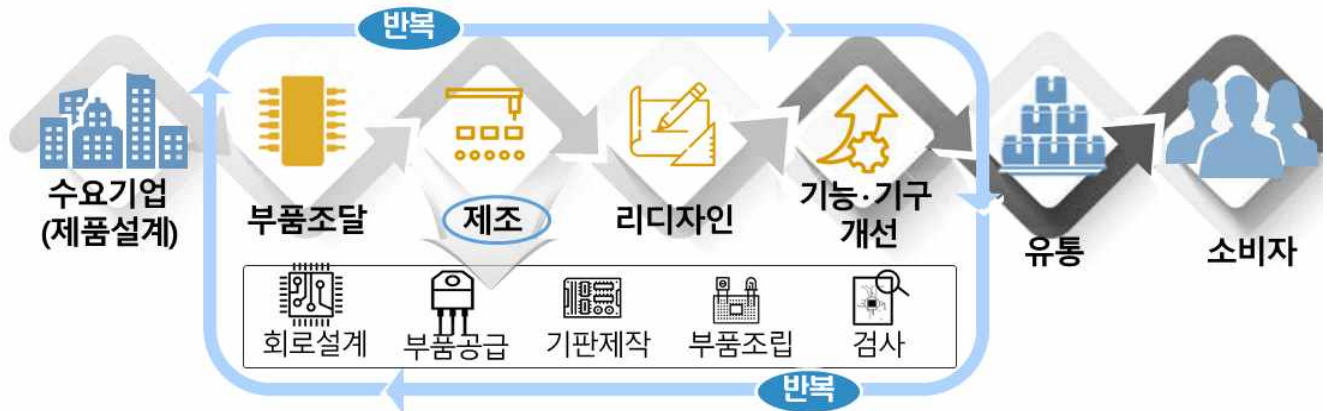
- 제조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부품정보시스템\*을 구축하여 전자기업의 부품 조달·대체, 부품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새로 개발된 국산부품 적용을 확산해갈 계획이다.

\* 다양한 부품의 사양·구매정보 등을 수요기업에 제공하여 부품수급 애로 해소

## ② 제품의 기능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상품화 서비스 지원을 통해 혁신 제품 탄생을 촉진한다.

- 초도제품의 소비자 반응을 반영하여 리디자인(설계변경, 부품교체 등) 및 기능·기구를 개선하고 반복제조를 통해 혁신제품으로의 상품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.

< 전자혁신제조플랫폼 지원 프로세스 >



< 전자혁신제조플랫폼 지원 비교(예시) >

구분	기간	비용	기술유출	의사소통
심천(화창베이)	13일	120만원	위험	어려움
전자혁신제조플랫폼	3일	30만원	안전	원활

\* 시스피커 : 수량 100개, 1회 생산 기준(물류, 중개료, 검사비 포함, 재료비 제외)

- 산업통상자원부 김완기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은 “전자혁신제조지원 사업을 통해 전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하고 도심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자제조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- 동 사업을 통해, 해외로 나가는 소량생산수요를 전자혁신제조플랫폼으로 흡수하고 대량 양산물량은 배후 산업단지로 연결하는 전자제조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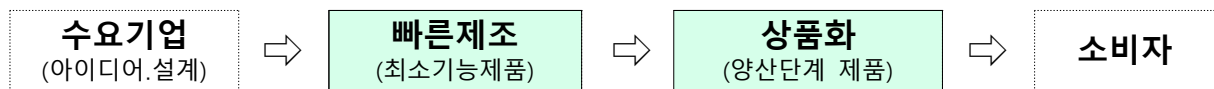
※ 접수기간은 2021.2.15.(월)~3.5.(금) 예정이며, 세부 과제제안서(RFP)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www.kiat.or.kr)에서 확인 가능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박이용 사무관(☎ 044-203-42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- (목적·내용) 전자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전자혁신제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빠른제조·부품지원·상품화 가능한 전자제조서비스 지원
  - (공동플랫폼) 전자제조 및 유통인프라가 밀집된 도심 내에 빠른제조, 부품지원, 상품화가 가능한 전자혁신제조 플랫폼 구축
    - 제조사, 부품사, 제조서비스기업, 유통사들이 전자혁신제조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계되어 전자혁신제조 플랫폼 확산

< 전자혁신제조 프로세스 >



- (제조서비스) 전문 엔지니어에 의해 빠른 제조, 부품지원, 상품화 서비스 지원

< 제조 서비스 프로그램 >

구 분	내 용
빠른제조· 부품지원	○ 소량제조, 빠른제조 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 및 활용 지원 * 부품조립 장비, 모듈 및 부품단위 검사분석 전자제조(시생산) 장비 구축
	○ 부품정보, 수급지원정보를 제공하는 부품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지원 * 품목별 부품정보 제공, 대체부품조달, 부품공동구매 지원
상품화지원	○ 재설계, 리디자인 등 제품 개선 지원 * 기능, 디자인 등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기구, HW, SW 변경지원

□ 수혜기업

- 전자제품의 샘플, 시생산, 제품화를 희망하는 중견, 중소 전자 관련 기업
- 부품 납품을 희망하는 전자부품社 및 전자부품 공급망
- 기술보유 및 아이디어를 확보, 샘플제작을 추진 중인 소공인

□ 기대효과

- 해외로 나가는 소량생산 수요를 전자혁신제조플랫폼으로 흡수, 대량 양산물량을 배후 산업단지로 연결하는 전자제조 선순환 생태계 마련
- 전자혁신제조플랫폼 주변에 부품기업, 제조기업, 제조서비스 기업과 전문가들이 밀집함으로써 도심형 일자리 창출